

반 송 월 보

1986. 1. 11

제 10 호



발행 : 반송동천주교회

[창원시 반림동 1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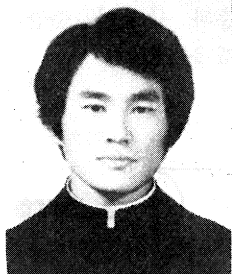
T. 82-0985.3012

주임신부 : 이은진 (도미니꼬)

원장수녀 : 은호노라다

회 장 : 김 중 원 (요셉)

신년사



## “성체와 가정의 해를 맞으면서”

주임신부

이 은 진 (도미니꼬)

사랑하는 솔터의 교형자매 여러분!  
새해에도 주님의 축복이 가정가정마다 풍성  
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앞에 희망의 새해가 밝아 왔읍니다.  
새롭고 기쁜 마음으로 올 한해를 하느님께  
봉헌하도록 해야 하겠읍니다.

금년은 “성체와 가정의 해”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사상 규모나 내용면에서 가장  
후독하고 큰 박해였던 병인박해인 1866년으  
로부터 2甲子 12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  
런 점에서 우리는 새롭고 큰 각오로 새해  
를 열고 맞아야겠다고 생각 됩니다. 이에  
금년도 주교단의 사목교서 에서도 이렇게 밝  
히고 있습니다.

“증거의 해로 사목 목표를 정했던 지난해  
우리는 순교 선조들의 정신과 삶에 대한 교  
황성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우리를 위해 죽  
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현  
실적으로 현존하고 계심을 이웃에게 증거 하  
려고 노력하였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부활의  
증거자로 그리스도 사랑을 전하는 사도로서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내적쇄신과 회개로  
그리스도와 일치해야 합니다. 이와같이 생활  
하기 위해선 우리 삶의 보금자리며 그리스도인

공동체 기본요소가 되는 가정이 성화 되어  
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사회 현실은 경제성장과 복  
지증진을 이룬다는 명목하에 거대한 생산체  
제의 사회구조로 변하면서 전통적 가치관은  
전도되고 인간성 상실과 사람과 생명의 경  
시풍조가 만연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현실은 고유한 전통적 가정에 대한 가치관  
을 변질 시켰고 이로 인해 수 많은 가정이  
파탄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읍니다.”

라고 지적하면서 이에 한국 주교단은 이점  
을 숙의한 결과 “인류의 행복한 미래는  
가정에 달려있기 때문에 모든이는 가정의  
가치 요구 조건을 충족시켜 올바른 가정  
생활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교회는  
가정에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  
도인 가정은 가정에 관한 그리스도의 가르  
침과 계획을 기쁨과 확신을 갖고 이웃에  
선포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 가정은 성체의 신비를 깊이 묵  
상하면서 주님과 일치된 삶을 통해서 열성  
적으로 가정사도직을 수행하고 아울러 성체  
안에 모든 가정을 일치시켜 가정적인 본당  
공동체를 이루어 그 안에서 서로가 한 가  
족임을 깨닫도록 힘써야 하겠읍니다. 더 나  
아가 우리 주위의 모든 가정들도 성체안  
에서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가정 생활을  
하도록 도와 줌으로서 이 사회가 보다 밝  
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쇄신되도록 해야만  
하겠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가정 성화의 원동력은 바로 성체성사 입니  
다. 사실 미사와 성체보다 더 큰 은총의 샘  
은 없습니다. 성체신비를 자주 묵상하고 깊  
이 접하므로써 가정 성화는 가능 하므로

성체조배의 생활화와 지속적인 성체조배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렇기 위해선 우리 주교님의 취지처럼 가정기도의 생활화가 가장 중요한 안전이 되겠습니다. 전 가족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길 뿐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가정기도를 하지 않으면 신자가 못되는줄 알았습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 아침 저녁기도와 삼종, 묵주기도 등 일상기도와 특히 아침 저녁기도시 가족이 함께 성서를 돌아가면서 읽고 묵상하고 토론하며 성가로 하느님을 찬미하는 가정만이 참된 가정교회, 성가정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해엔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하는 가정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금년 본당의 모든 사목도 이를 위하여 전력을 투구할 계획입니다. 교형자매 여러분! 굳은 의지를 갖고 우리 가정과 사회의 성화를 위해 전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다짐합니다.



## 새해를 맞이하며 -

평협회장  
**김 중 원 (요셉)**

다사다난 했던 을축년을 보내고 병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형제 자매님들의 가정에 주님의 축복과 은총과 사랑을 듬뿍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성체와 가정의 해로 정해진 병인년을 더욱 알차고 보람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모아 노력해 갑시다. 지난 한해를 돌이켜 보면 좋은 일도 많았고 꺾은 일도 많았습니다. 좋은 일을 생각해 보면, 교구에서 실시한 주일학교 교리 경시 대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들의 노고로 우승을 하였고 그리고 창원지역 4개 본당 체육대회에서도 종합우승을 하였고 특히 중고등부 학생들이 열렬한 응원으로 응원상까지도 차지하였습니다. 또한 옥상 위에 교리실 2칸 15평을 증축하였고, 본

당 주방도 지었습니다. 기타 울타리 공사, 본당지붕 방수 공사..... 등등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이 본당 전 교우님들의 협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꺾은 일은, 85년 한 해동안 9명의 형제 자매님들이 주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신부님, 수녀님, 각 신심단체, 최일선에서 수고 하시는 지역 반장님들의 노고가 아니겠습니까? 86년 한 해도 교우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충만하시길 진심으로 기원 하겠습니다.

## 소식란

### ◎ 성탄 영세식

12월 22일 오후 3시 영세식이 장엄하고 기쁨 속에서 거행되었습니다. 우리 본당 사상 최대인 84명이 주님의 자녀로 탄생하였습니다.

영세자에게 축하드리고 앞으로 좋은 본당의 일꾼이 되길 부탁드립니다.

### ◎ 성탄 미사 성대히 거행

자정 미사에서 900여명이 입추의 여지 없는 가운데 1부 말씀의 전례에서 4개 독서를 통해 구세사를 묵상하였고 2부에서 구유 조배 및 미사를 2시간 동안 거행되었습니다.

### ◎ 성탄 축하행사

1부에서 주일학교 학생들이 연극, 무용 노래 등의 발표가. 2부에서는 성가 경연, 대회 및 복권추첨이 있었음.

성가경연대회 1 등: 예언자들의 모후 Pr  
2 등: 제대희  
3 등: 신비로운 장미 Pr  
가 족: 이갑철 (분도) 가족



◎ 성서 경시 대회 시상

- 가족 1 등: 김상희(요한)  
 2 등: 윤광우(요셉)  
 3 등: 김종석(페르디난도) 외 1가족  
 장려: 전동일(요한 보스코)  
 개인 1 등: 김부자(헬레나)  
 2 등: 장현교(분도)  
 3 등: 이선녀(테레사) 외 6명  
 장녀: 박성웅(안토니오) 외 4명

◎ 불우 이웃 돕기

성탄을 맞아 본당에서도 어려운 이웃을 찾아 사랑의 선물을 전달하였다.

내역은 다음과 같음

경로당: 금일봉

창원병원 환자: 양발, 타을 20명

본당교우: " 40세대

22동주민: " 40세대

청소부: " 6명

◎ 탁구대회

본당 내 신심단체 대항 친선 탁구대회를 개최합니다.

- 일시: 1월 26일 낮미사 후
  - 장소: 유치원 강당
  - 경기방식: 2단 1복으로 선 2승팀승자
  - 신청: 1월 19일까지 신청
- 여성단체는 별도 진행

◎ 주의 봉헌 축일

2월 2일 주일 - 낮미사, 저녁 미사시에 1년동안 쓸 전례용 초 축성이 있습니다.  
 본당, 제대용 초 봉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사용할 초도 축성 바랍니다.

◎ 신비 교육 실시

영세후 교리인 신비 교육이 1월10일(금) 부터 매주 금요일 실시됨(1월1달간)  
 85년 영세자 전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낮 반: 오전 10시

저녁 반: 오후 8시 30분



반기도회 일정



| 구역반  | 일   | 시     | 장             | 소         |
|------|-----|-------|---------------|-----------|
| 1-2  | 12일 | 20:00 | 10동 305       | 이옥선(글라라)  |
| 1-3  | 13일 | 10:30 | 19동 409       | 박유자(소피아)  |
| 1-4  | 19일 | 14:00 | 21동 308       | 함택순(마리아)  |
| 1-5  | 13일 | 10:00 | 84-0304       | 김용수(야고버)  |
| 1-8  | 13일 | 10:00 | 46동 201       | 이갑철(분도)   |
| 1-9  | 22일 | 14:00 | 54동 404       | 이 임마누엘    |
| 1-10 | 20일 | 20:30 | 83-7637       | 신 엘리사벳    |
| 2-2  | 17일 | 20:00 | 114동 504      | 이미순(아가다)  |
| 2-3  | 7일  | 14:00 | 122동 202      | 박 펠릭스     |
| 2-5  | 8일  |       |               | 임 호 엘     |
| 3-3  | 9일  | 10:30 |               | 박종옥(이시도로) |
| 3-4  | 6일  | 11:00 | 306동 102      | 장천옥(헬레나)  |
| 3-6  | 15일 | 11:00 | 320동 103      | 김 시 환     |
| 4-2  | 14일 | 10:00 |               | 진문자(가타리나) |
| 4-3  | 13일 |       | 동양 APT C동 102 | 노경구(벨라도)  |
| 4-5  |     |       | 84-0150       | 이기술(글라라)  |
| 5-3  | 8일  | 20:00 | 24동 104       | 김현목(마리노)  |
| 5-4  | 7일  | 14:30 | 25동 207       | 김혜란(도미니카) |
| 5-6  |     |       |               | 미 정       |



# 어머니의 눈물



현재 서울구치소에서는 이십여 명의 학생들이 '지하실'에 끌려가 조사를 받고 있으며 단식중인 상태에서 집단폭행을 당했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구치소에 수감되어 당하는 고통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질 듯한데, 그 안에서 상상할 수 없는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에 자식들의 아픔이 저희 어머니들의 뼈속까지 스며듭니다.

영하의 날씨에 물그릇이 꽁꽁 얼어붙고 장갑을 끼지 않으면 글썽조차 쓸 수 없는 소내의 환경에 대해 가족들이 대책을 요구하면 구치소측은 항상 회피를 해왔고, 이에 항의하여 지난 12월12일부터 학생을 비롯한 양심수들이 단식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던 중 12월 23일 오후 30여명의 보안과 요원들이 들이닥쳐 단식중인 학생들에게 집단폭행을 가하고 지하실로 끌고가 잠잘 때도 밧줄로 꽁꽁 묶어 놓는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오랜 기간의 단식으로 인해 지친 상태에서 집

단폭행을 당했기 때문에 건강이 치명적인 상태에까지 이르러 3명이 실신했다고 하며, 온몸에 멍이 들고, 얼굴이 찢기고, 입안이 헐고, 손, 발, 얼굴 등이 심한 동상에 걸려있으며, 쓰러져 나간 사람조차 현재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열악한 소내환경이나 폭력보다 더욱 무서운 것은 아이들이 받은 정신적인 상처입니다. 우리 아들, 딸들은 "죽음이 눈앞에 어른거려요. 차라리 죽는게 나을 정도예요. 엄마! 여긴 지옥이에요!"라고 절규하며 절망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인간에 대한 불신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었습니까? 십자가 밑에 선 마리아, 이 분도 아들이신 예수의 죽음을 보며 이러한 눈물의 기도를 바치셨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죽음이 눈앞에 어른거리고 있다"는 내아들의 절규는 이 시대에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어둠속에서의 절규입니까? \*

어두움을 몰아내고 빛을 밝힙시다.

## 예수공헌대축일

- Sollemnitas in Epiphania Domini -  
예수 공헌 대축일

그리스어와 라틴어로 Epiphania 또는 Theophania라 부른다. 글자 그대로 공현, 현현, 곧 나타난다는 뜻이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비밀을 모두 알려 주셨다는 뜻이다. 즉 예수가 곧 하느님의 모든 것을 계시(啓示)하신 것이다. 이 축일은 본래 1월6일에 기억하며 예집트, 시리아 등 동방교회 문화권에서는 예수의 탄생, 세 박사의 조배, 예수 세례, 가나의 혼인기적 등을 묶어서 기념해 왔었는데 서방교회에서 12월25일을 예수 성탄일로 기념하자 이 축일은 세 박사 방문과 세례기념으로 초점이 맞추어지고 후에 세례축일을 따로 기념하게 된 것이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는 압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즉 한 사건이 여러 신비를 지니고 있다.

라틴교회에서는 8세기경부터 이 축일에 나타난 세 박사를 가스팔, 멜키엘, 발다살로 기억해 왔고, 시리아와 아르메니아에서는 이름이 다른 세 박사가 언급되고 있다.

예집트 월력에서는 1월6일이 바로 동지여서, 이날 태양신을 공경했었다. 따라서 이 축일도 성탄 축일과 같이 이교문화 풍습의 크리스찬화라 할 수 있다. 세 박사의 봉헌을 따라 이날 선물을 주고 받는다.

한국에서는 신자들의 이익과 편의를 위하여 1월2일과 1월8일 사이의 주일(主日)에 이 축일을 지내고 있다. \*



## 성서 묵상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사  
람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 요한 17.11 >



겨울방학 학생 대모집

## 셈벗주산학원

대 상 : 유 치 부 ( 5 ~ 7 세 )

국교생부 ( 1 ~ 6 학년 )

중고 일반부

반송종합시장 2층

TEL 83 - 6304

원장 조영미(비비안나)

